

현대차그룹 5개 계열사 'RE100' 참여

(재생에너지100%)

“재생에너지로 자동차 만들겠다”... 脫탄소 실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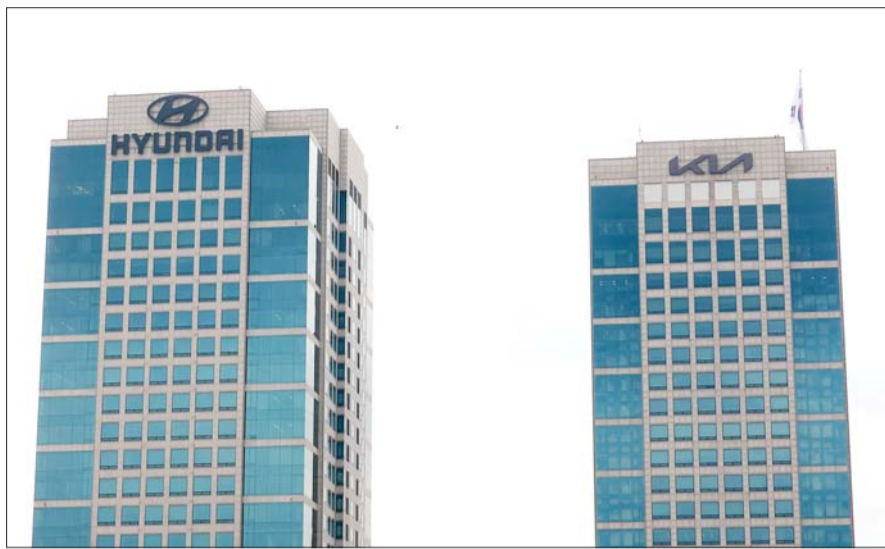
5개사, 이달 중 가입신청서 제출
글로벌 사업장 RE100 대응 협업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이 '환경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현대차그룹 5개사가 글로벌 캠페인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한다. 전세계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 대체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등 주요 5개사가 이달 중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RE100은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가입 이후 1년 이내에 중장기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받는다.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지난달 말 기준 전세계 310여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11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S

K 8개사가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바 있다.

현대차 등 5개사는 2050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되, 회사별 여건과 해외 진출 사업장의 에너지 공급 상황에 따라 2040년 이후부터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개사는 공동 진출한 글로벌

사업장에서 RE100 대응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을 비롯해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자에게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거래계약(PPA)', 한국전력을 통한 '녹색 프리미엄' 전력 구매 등을 검토한다.

나머지 그룹사도 RE100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는 이미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사용 절감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3년 아산공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연간 1만3천MWh를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울산공장 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연간 1만2천500MWh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기아는 2019년 슬로바키아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오토랜드 광명과 화성, 광주가 국제표준화기구(I

SO) 공인 '에너지경영 시스템(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모비스도 올해 초 슬로바키아와 스웨덴 사업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국내외 사업장에 '에너지관리 시스템(GMEMS)'을 적용,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과 실천"이라며 "향후 자동차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해 글로벌 순환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23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차세대 배속, 수소 트럭 등 다양한 수소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트램, 선박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스포티지, 사전계약 첫날 1만6078대 '돌풍'

기아 준중형 SUV 사전계약 최고기록
1.6 터보 가솔린 모델 2442만원부터

기아 신형 스포티지가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했다.

기아는 지난 6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준중형 SUV 신형 스포티지의 첫날 계약대수가 1만6078대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4세대 쏘렌토(1만8941대)에 이어 국내 SUV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자 준중형 SUV 부문에서 최고 수치다.

스포티지는 1993년 출시부터 지난 5월까지 전 세계에서 총 613만6357대가 판매되며 기아 모델 중 처음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600만대를 돌파한 모델이다.

기아는 신형 스포티지의 인기 비결이 중형급으로 커진 차체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최첨단 사양을 대거 탑재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기아 관계자는 "기존 준중형 SUV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실내공간에



기아 신형 스포티지.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품격 SUV로 완전히 탈바꿈한 신형 스포티지를 통해 준중형 SUV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3세대 신규 플랫폼 기반의 신형 스포티지는 국내 준중형 SUV 최초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터치 방식의 전환형 조작계를 장착해 차급을 뛰어넘는 실내 공간을 갖췄다"면서 "국내 브랜드 최초로 터레인 모드에 적용한 오토 기능은 지형 조건

에 따라 4WD, 엔진, 변속기, 제동시스템을 통한 제어해 자동으로 최적의 주행 성능을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신형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1.6 터보 가솔린의 경우 ▲트렌디 2442만원 ▲프레스티지 2624만원 ▲노블레스 2869만원 ▲시그니처 3193만원이고, 2.0 디젤이 ▲트렌디 2634만원 ▲프레스티지 2815만원 ▲노블레스 3061만원 ▲시그니처 338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최태원 SK 회장, 유학 떠나는 학생 배웅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최태원 SK 회장이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을 격려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7일 광진구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 이사장인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29명의 장학생과 최병일 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장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이 기회를 잘 살려 목표를 성취하길 바란다"는 격려를 전했다. 이어 "학업을 마친 후에도 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전 세대와 사회에 감사함을 갖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1974년 최중현 선대회장이 설립했다. 이후 1998년 최태원 회장이 2대 이사장으로 취임



최태원 SK 회장 겸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7일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SK

했다. 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 37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하버드대·시카고대·스탠퍼드대 등에서 800여명의 박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이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줘야 나중에 그것을 받은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좀 더 나은 길로 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성취를 위해 전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현대 수습기자 cdf1@

멜론,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인포 시스템 탑재

멜론컴퍼니-현대차그룹 기술 제휴

뮤직플랫폼 멜론(Melon)이 기아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에 탑재된다.

멜론컴퍼니는 멜론이 현대자동차그룹과 기술제휴를 통해 7일 출시하는 제네시스 첫 럭셔리 전기차 'Electrified G80' 모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된다고 밝혔다. 멜론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네시스의 다른 모델에도 같은 방식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제휴로 제네시스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터치만으로 멜론의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멜론이 제공하는 대표적 메뉴는 음악 검색을 비롯해 인기곡 차트인 '24hits'와 내 플레이리스트, 최신 곡, 좋아요를 누른 곡을 보여주는 '좋아요' 등이다. 또 가

입된 멜론 이용권에 따라 고음질의 무손실 음원(FLAC)까지도 감상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멜론과 제네시스의 커넥티드 서비스 GCS(Genesi s Connected Services)를 연동해야 한다. GC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뮤직 스트리밍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고 자신의 멜론 계정을 연결해야 한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

제주항공

국내·국제선 특별 프로모션

편도 이용에 따라 할인쿠폰 제공

제주항공이 여름휴가 성수기 기간 중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내선은 오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주항공 회원을 대상으로 스탬프래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 중 국내선 전 노선에서 편도 7회를 탑승하면 리프레시 포인트 4만점을 적립해 주며 편도 2회·4회·6회 차 탑승을 완료할 때 마다 할인쿠폰을 추가 지급한다.

편도 2회를 탑승하면 비즈니스라이프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4회 탑승 시에는 국내선 FLY BAG+8000원 할인쿠폰을, 6회 탑승 시에는 FLY BAG+1만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스탬프 달성 후에는 적립신청 버튼을 클릭해야만 리프레시 포인트 4만점을 적립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오는 10월 20일 일괄 지급된다.

국제선은 오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오사카·나리타·마닐라'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여정 변경 1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FLY BAG 이상의 요금제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위탁수하물 10kg을 추가로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